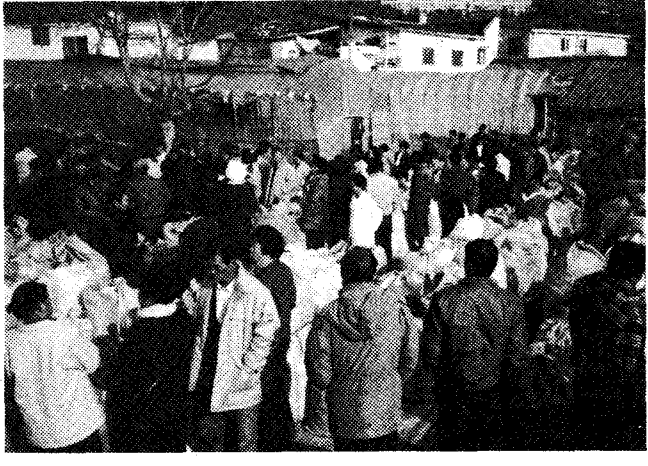


# 충남 경북 전남 삼도시호수매



◇전라남도 벌교에서의 삼도시호 수매 장면.

## 총수매량 약 50억톤, 9억8백만원 상당 제주도는 2월말부터 3월초순경 실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작된 충남·전남·전북 지역의 삼도시호 수매가 지난 1월 16일부로 무리됐다.

지역별 수매현황(충남) : 삼도시호(54억톤) 2백53억, 금강(1백37억), 1천5백51억

삼주곡(86억톤) 3천7백30억, 문경(36억톤) 9백30억, 고령(55억톤) 2만2천억, 보령(1백37억) 3천천5백억, 해남(장흥) 2천1백30억, 3천억

### 한약재 공개경매 15일 협회중앙공판장서

한약재 생산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 한약재의 거래를 이룰 수 있는 공개경매가 실시된다. 한약재협회는 15일 협회중앙공판장에서 공개경매를 실시한다. 이번 공개경매는 한약재협회가 주관하며, 협회 회원 농민들이 생산한 한약재를 협회 중앙공판장에서 공개경매를 실시한다. 협회 중앙공판장은 협회 회원 농민들이 생산한 한약재를 협회 중앙공판장에서 공개경매를 실시한다. 협회 중앙공판장은 협회 회원 농민들이 생산한 한약재를 협회 중앙공판장에서 공개경매를 실시한다.

## 사설

### 무조건 밀어부치기(?)

한쪽에서는 규격화 4월 실시가 확실하다느니 또 다른 쪽에서는 1-2년 유보해야 한다느니 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한술밥을 먹는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부의 의견이 각각이니 재배농민입장에서 보면 속 터질 노릇이다.

한약재규격화가 우리나라 농촌현실과는 무관하게 그토록 절대절명의 과제라면 우선 관련단체들로부터라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당위성을 찾아내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만약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 형편에 맞게 수정하는 융통성도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9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시민의 모임 김순희장이 지적했듯이, 80여개 제조업체에 한하여 규격품한약재를 유통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특히 국내산 17종에 대한 규격화 시행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숙지환 등 법제를 해야 하는 품목만을 우선 선정하여 시범 규격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수입개방화다 뭐다 해서 가뜰이나 마음 졸이고 있는 농민들은 정부가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숨을 죄기도 한다. 농민들의 이러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부처간의 합의점도 찾기 못한채 품질규격에 대한 기준치마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탁상공론식의 방안들을, '약사법'을 엮고 무조건 밀어부치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한 나라의 보사정책이 특정집단의 이권문제와 맞물려 국민보건이라는 미명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 새로운 도시의 풍물로

과거 60년대의 경동한약상가는 불과 몇 사람들이 상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취급하는 영세하기 이를데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현재, 경동시장은 전국 한약재의 대부분이 이곳을 거쳐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약재상가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경동한약상가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부터. 전국 각지에서 약초를 캐 도시로 팔리나온 뜨내기 약종상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였다. 부근에 청량리역, 성동역, 마장동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있는 동부교통의 요충지로 약재의 집산지 역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종로나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들도 임대료가 싼 이곳으로 하나둘 이주해 오면서 한약상가는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계획성있게 만들어진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도 많고 또 불법비리가 판을 치는 것처럼 보여진 부분도 없지 않았으나 상가내에 자체조직된 번영회·한우회 등에서 거리질서와 유통질서 확립 등 자율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면서 경동한약상가는 눈에 띄는 변모를 가져왔다.

지난해 5월에는 경동한약가 일대 관련단체들이 모여 경동한약가협의회라는 모임을 결성함과 동시에 전통한약상가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제2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경동한약상가는 국내에서 대구약령시와 함께 전통한약상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계기관에서도 이곳을 '전통한약상가'로 지정해 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보건향상과 국내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다행스런 일이다. 경동한약상가가 전통한약상가로 지정됨으로써 세계화시대에 새로운 도시의 풍물로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 규격화고시 이후 경과보고

- 94. 3.25 보사부 고시 제1994-11호(규격품 대상 한약재 지정 고시(안)발표)
  - 94. 4.19 경기도 포천군 생약재배회원 207명 서명날인 \*보사부 약무정책과 질서과 발송
  - 94. 4.20 전북 도내 생산농가 대표자회의 \*보사부 규격화 시책에 반대 (전북신문, 전북도민신문, 호남일보, KBS라디오 대담프로)
  - 94. 4.26 농림수산부 집업특과과 현지방문(경기도 포천군)
  - 94. 4.27 농림수산부 집업특과과 현지방문(경기도 이천군)
  - 94. 4.28 제2차 이사회. 규격화고시 반대 결의
  - 94. 5.11 회장단 회의 대책논의
  - 94. 5.12 보사부 약무정책과(본 협회의 입장 서류제출)
  - 94. 5.19 농림수산부 집업특과과(규격화 고시반대 서류제출)
  - 94. 5.25 강원도 정선군청 방문(군수면담)
  - 94. 5.27 지부장 회의 개최(보사부 규격화 고시에 대한 대책)
  - 94. 5.27 충남 논산군 생약농민 진정서 보사부 발송
  - 94. 6.28 국회 농수산분과 위원장 면담(규격화 고시에 따른 문제점 논의)
  - 94. 8.2 보사부 규격화 제도 추진 방안 협의회(생산자 단체의 입장 설명)
  - 94. 8.4 기자간담회 개최(규격화 고시가 갖는 문제점)
  - 94. 8.24 회장단 회의
  - 94. 10.13 회장단 회의
  - 94. 10.20 국회 보사분과위원회 면담
  - 94. 11.9 한약관리규정 제정 고시를 위한 정책협의회(보건사회연구원, 본 회 이종용회장과 농민대표 강원도 인제 이종렬씨가 토론자로 참석)
- <기 타>  
지부별 대책회의의 수차례 : 자체 지부회의  
농림수산부 방문(회장단 4차례) : 농림국장, 집업과장, 사무관 등 규격화 반대 협의  
보건사회부 방문(부서장 2차례) : 약무정책과장, 사무관, 실무자를 생산자 입장 표명  
보건사회부 정책실장 면담(회장단)  
국회 관련의원 면담(회장단)
- <규격화 반대 생산회원 서명 접수 및 보고 현황>  
·전북 1,867명 ·전남 2,000명 ·경북 761명  
·경남 380명 ·충북 230명 ·충남 160명  
·강원 1,103명 ·경기 300명 계 6,821명

### 천공수입 절대반대 농민들 관계부처에 진정

외국산 천공 수입이 절정되고 있음에 따라 재배농민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농민들은 천공수입의 부당함을 강력히 반대하며, 관계부처에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천공수입은 국내산 약재보다 50% 이상 저렴하게 수입되는 것으로, 이는 국내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에 천공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국내산 약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내방

전통한약(농약박사)인 김영근 원장(전남)은 산림청(농림부) 산하인 국립한약연구원(전남)을 방문하여 산지개발과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산지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김 원장은 "산지개발은 한약재 생산의 기반이 되므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한, 한약재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한약재의 품질향상은 국민 건강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3월에 있을 제26차 정기총회에 상정할 의안

95년 제1차 이사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위 개최  
제10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가 지난 1월 26일 10시 한양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경과보고와 함께 천공수입반대 등 생산농민들의 진정에 따른 천공수입 여부 협의와 지원수입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의결했다.